

## 제7대 박윤섭 교육감 취임사



제 7 대 박윤섭

재임기간 : 제7대 (1987.2.9~1989.4.24)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께서  
본인을 교육감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신 역대 교육감님과 제6대  
황철수 교육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에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학부모님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조국은 시련의 역사가 물고 온 후진과 정체의 굴레를 벗어나 풍  
요와 복지가 충만한 대양으로 힘차게 항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눈부  
신 성장을 이룩하는 거대한 추진력이 된 우리 교육은 선진과 통일조국  
건설의 국민적 대열에 참여하여 발전적 의지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시점에서 국민교육에 헌신 노력하시는 교육동지 여려  
분과 함께 반공 호국의 전초지이며 수도권 지역인 경기의 교육과업을  
맡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책임이 무거움을 통감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교육개혁 의지를 높이 받들고 문교시책의 큰  
줄기 아래 경기교육의 지표를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하여 「다듬는 교육」을 실천적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본인의 교육행정  
과 교단의 경험을 살려 창조와 개혁의 주역을 길러 내는 교육의 선진  
화에 헌신할 굳은 결의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교육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과 저력  
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교육경쟁의 세계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뭉쳐 실로 많은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할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경기교육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밝히기로 하

고 오늘은 교육문제에 관하여 인식을 함께 하는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첫째,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국민의식과 지적 능력 그리고 창조적 생활 태도를 함양하여 내일의 주인공을 심신이 밝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며 자기실현에 힘쓰게 함은 오늘을 사는 교육자의 책무입니다. 교단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교재내용을 정선 조직하여 전이가 높은 지식을 불어 넣어 주고 탐구적 학습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학력향상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농간, 학교간의 학력차를 해소하고 학력의 상향적 평준화를 기함으로써 기초학력의 책임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래의 물량적인 발전과 산업사회화의 기세는 가치 전도현상을 빚어내고, 인간 경시의 풍조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젊은 세대들의 일부에서 오늘의 번영과 내일의 밝은 미래상 실현의 굳은 발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현실적 상황은 우리 교육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보와 이념 사상 교육을 강화하여, 반공 애국이 우리의 삶의 길임을 깨우쳐 주고 우리의 전통에 바탕을 둔 윤리와 생활관을 뿌리깊이 심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학교에서는 기본생활과 학습습관의 정착에 힘쓰고, 중등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인성교육에 전력을 기울여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도덕적이고 주체적이며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는데 교육의 효율을 증대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경기도학도애향단 활동은 국민정신의 실천적 활동이며 교육의 사회화라 믿어져 더욱 지속적으로 애향의 마음을 교감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조적인 과학 기술 교육의 진흥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국력 강화의 원천인 과학지식과 기술정보는 산업사회의 국제경쟁력을 가름하는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인력자원을 최대한 자산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우수두뇌를 확보해야 함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 실험·관찰·실습을 확충하여 탐구능력을 배양하고 과학 영재를 조기발굴 육성함으로써, 선진의 장벽을 힘차게 뛰어 넘는 터전을 충실히 닦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겨레의 스승이란 높은 증지로 사도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내일로 이어가는 징검다리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교육은 스승이 있기에 현실 문제의 개척과 역사의 창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반공 이념으로 굳게 무장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부동의 교육철학을 가지는 한편, 부단히 지와 덕을 키워 자기를 날로 새롭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참다운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태워 주변을 밝히는 촛불의 미덕을 체득하여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하며 교단, 교실을 진리 탐구와 인격 도야의 장으로 만들어 가면서 사제동행의 수범적인 생활이 학교밖에 까지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존경받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셋째, 창의적이고 봉사적인 교실 중심의 지원 행정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실 현장에서 2000년대의 주역이 삶의 슬기를 버리고 인격형성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수·학습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함은 교단 지원의 일차적 소임입니다.

학교는 그 학교장의 그림자와 같은 것임을 전제하면서 학교장 중심의 교육경영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자율에 따른 책임이 막중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직은 교육현장을 돕는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주변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에 총력을 경주하고 수업 중심의 협의 장학을 활성화함으로써 2세 교육에 최선의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조직이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오늘의 사회는 교육행정의 전문적 의견과 고도의 기법을 요구합니다.

현장 교육이 국가 발전에 직결되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추진하며 교육 지도 기능을 능률화하고,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데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교육 관제 기관이 고유한 역할 수행능력을 제고하여 교단 지원의 큰 몫을 해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경기교육동지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맞는 88서울올림픽 개최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선진 강국의 분기점이 될 중대한 국면에서 소명 의식을 높이 하

여 국가의 대사를 매듭짓고 민족의 영광을 창조하는데 위대한 교육력을 결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오늘 교육감의 중책을 맡은 본인은 삼만 교육자와 5백만 도민의 향토애가 대합창을 이루어 경기교육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국운 융성의 저력으로 승화될 것을 확신하며 보람찬 날을 위하여 신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교육동지, 여러분의 조언과 협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취임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7년 2월 10일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박 윤 섭